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 위해 '군민과 소통'...정책 발굴 방안 토론했다

장성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민과 머리를 맞댔다.

군은 최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인구감소 대응 군민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춰 거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주민들이 군민참여단으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주거·정주여건 △인재 육성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됐다.

주거·정주여건 분과에서는 빈집과 빈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민 세컨드 하우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지원제도를 일원화하고 청년커뮤니티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인재육성 분과는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령기 가족의

지역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중·고등학교 진학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보다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애니메이션, 미술치료 등 특색 있는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을 일제로 들었다.

일자리·경제 분과에서는 장성이 광주의 위성도시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연계성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노산단 등에 청년 유입을 유도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타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문화·관광 분과에서는 축령산, 백양사, 황룡강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장성군은 이번 군민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현안, 해결과제, 인구유입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광종 기자

나주, '베이비 마사지 교실' 큰 호응 아기와의 정서적 교감, 육아 자신감 키워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감터치 베이비 마사지 교실'에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된 초보 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생후 3~8개월이 된 아기의 성장발육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아기 맞춤형 마사지 교실이다.

상반기(3~6월), 하반기(9~11월)로 나누어 전문강사 지도 아래 산모와 아기 15쌍을 대상으로 주 1회 진행된다.

마사지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성장발육에 큰 도움을 준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 면역력 향상과 소화 기능, 숙면, 촉각 발달 등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마사지를 통한 아기와의 정서적 교감은 물론 참여자 간 육아 경험 공유를 통해 육아 자신감과 역

량을 키우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마사지와 더불어 육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제 막 육아가 시작된 엄마들에게 유용한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베이비 마사지 교실 외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공예 아기용품 만들기 등 '아기마중 DIY 임산부 태교 교실', 숲 산책과 명상을 통해 건강한 태교를 돕는 '숲 태교 부부 출산교실' 등을 3~11월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등록, 영양제(엽산·철분제)지원, 임산부 주차증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유축기 대여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김동철 기자

영광군, 벼 재배기술 교육

영광군(군수 강중만)은 최근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을 시범사업 관계자 등 90여 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강대찬, 새청무, 조명1호 등을 육성한 전남농업기술원 신서호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신서호 박사는 최근 쌀 공급 과잉 발생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쌀 품질 고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철저한 종자소독, 적절한 파종량 준수, 품종별 적정 시비량 관리, 병해충방제 신속대응 등"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남에서 새청무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해 육성된 강대찬 벼는 신동진과 비교했을 때 300평당 쌀 수량이 545kg으로 비슷하지만 66% 정도에 머무는 신동진의 도정률에 비해 70% 정도로 높은 장점이 있고, 또, 태풍이 올라오는 9~10월에 다른 품종과 비교했을 때 쓰러짐과 수발아에 강해 강대찬 벼가 신동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전했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영광군이 고품질 벼 생산의 메카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라고 전하면서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벼 품종·우량종자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경률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군정발전혁신단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연구역량 강화 지원, 긴급복지 신고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추진 등 총 3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첫 정기회의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연구역량 강화 지원 △긴급복지 신고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추진 등 총 3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또한 '유희공간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경남 함양군, 전북 익산시 등 8개 지역을 벤치마킹하며 발굴한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 유도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유희공간 활용 콘텐츠가 있는 골목길 조성 등 우리 군에 접목할만한 아이디어 8건이 제시됐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군은 새롭게 변화하며 다방면에서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한 혁신단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혁신단은 화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관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다. /남호경 기자

담양, 향우들의 따뜻한 기부행렬 이어져

담양 출신 향우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전 부장판사 출신 조현호 변호사가, 수완센터병원원의 고길석 대표원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쾌척하며 고향사랑의 마음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호 변호사는 담양군 월산면 출신으로 1997년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재직했으며,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검찰청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해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월산면에서 나고 자란 추억이 있는 고향 담양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기부금이 담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진성 기자

지난 2015년 개원한 수완센터병원원은 22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진료하고 있다.

수완센터병원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일자리 100대 으뜸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일, 생활균형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유공 정부 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일자리 개선과 지역 의료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길석 수완센터병원 대표원장은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 지원에 의미있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좋은 취지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공유해 담양 출신의 의사들의 릴레이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진성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